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5, pp. 48-54,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5.048

일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복합 연구

김정숙*, 김성의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Converged Study on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eong-Suk Kim*, Seong-Ui Kim
Professor, Dep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의 관계와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C지역의 C대학과 H대학 3학년 간호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1.0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없었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β=0.246, p=.000), 자기효능감(β=-.170, p=.000), 자아존중감(β=-.131 p=.000)순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의 원인과 우울수준을 심층적으로 사정하고 우울을 감소시켜 정서적 건강문제를 위협하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nursing students influence factor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of 11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3rd graders at two c, h colleges in c a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October 2017 to December 2017. Th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were stress (β=0.246, p=.000), self-efficacy(β=-.170, p=.000) and self-esteem(β=-.131, p=.000). In order to prevent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epression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find ways to counteract emotional health problem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Depressio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응하는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 행동에 대한 반응상태를 말하며 정신질환의 원인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1].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과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교과과정에 병행하고 있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첫 임상실습은 긴장과 불안이 매우 심한 편으로 실습이 두렵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상실, 전공에 대한 불안, 회의마저 느끼며 심각한 우울, 불안 상태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트레스는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Corresponding Author : Jeong-Suk Kim (nursekim0305@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6, 2019
Revised April 23,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습현장,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응력이 높고 학업성취감이 높다[3].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슬픔, 우울, 무기력감을 경험하며 중증 우울로 진행될 수 있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이다[4]. 대학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예측 변수 중의 하나가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이 선행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5]. 간호학생은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 자신의 학업과 과제를 잘 수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6].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우울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Beck[7]은 개인이 어떤 특정사건을 경험할 때 기존에 이미 형성된 인지 도식으로 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울해 진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을 동반하게 되고 의욕상실 및 학업능력저하, 대인관계능력을 초래하며 우울 정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8]. 이 우울로 인해 자살까지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9].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우울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적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될 경우 우울감을 초래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는 인지치료와 집단미술요법을 독립변수로 하여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가 일부 있다[10,1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우울 및 자기효능감 비교연구[12]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다[1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우울 영향요인을 설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과 상담, 학습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우울을 포함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조사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언제라도 설문지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과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이외에 이용되지 않음을 공지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4학년은 국가고시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설문을 거부하여 3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의 C대학과 H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3학년 124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24부를 배포하여 116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 8부를 제외하고 116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에서 변수 4개로 하였을 때 총 108명이 되었다. 본 설문은 116명을 설문하였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Uo[11]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차원 스트레스 39문항(개인내 15문항, 개인간 5문항, 학업 10문항, 환경 9문항)과 임상차원스트레스 20문항(실습대상자 8문항, 임상환경 4문항, 실습지도자 5문항, 실습생 3문항)으로 총 59문항이며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Cronbach's α=.94, 임상차원의 스트레스는 Cronbach's α=.92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차원 스트레스가 Cronbach's α=.95, 임상차원의 스트레스는 Cronbach's α=.93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Rosenberg[1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Jeon[15]이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Rosenberg(196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고 Jeon[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Sherer 등[16]이 개발한 도구를 Oh[17]가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1 이었다.

2.3.4 우 울

Beck[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우울증상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영역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21문항이며, 0-3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Lee 등[1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 상태를 의미한다. Lee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8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연령은 20대가 84.5%, 30대 이상이 15.5%였다. 성별은 여성이 81.0%, 남성이 19.0%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군이 67.2%, 있는 군이 32.8%, 동아리활동은 하고 있다가 12.1%, 못하고 있다가 87.9%, 흡연군은 21.6%, 비흡연군은 78.4%, 음주를 하는 군이 45.7%, 비음주군은 54.3%, 대학생활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 27.6%, 불만족이 18.1%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집에서 37.1%, 기숙사 35.3%, 자취 및 하숙이 27.6%, 경제수준은 상이 24.1%, 중간이 46.6%, 하가 29.3%였다. 성적수준은 상이 38.8%, 하가 23.3%로 나타났다. 연령구분기준은 만학도와 정원외 입학전형자의 연령이 높아 20대와 3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Depression (N=116)

Variable	Category	N(%)
Age	22-29	98(84.5)
	≥30	18(15.5)
Gender	male	22(19.0)
	female	94(81.0)
Religion	yes	38(32.8)
	no	78(67.2)
Club activity	yes	14(12.1)
	no	102(87.9)
Smoking	yes	25(21.6)
	no	91(78.4)
Alcohol drinking	yes	53(45.7)
	no	63(54.3)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32(27.6)
	satisfaction	43(37.1))
	moderate	20(17.2)
	no	21(18.1)
Residence Type	house	43(37.1)
	dormitory	41(35.3)
	lodging, living alone	32(27.6)

Economic Level	high	28(24.1)
	middle	54(46.6)
	low	34(29.3)
Grade Level	high	45(38.8)
	middle	44(37.9)
	low	27(23.3)

3.2. 우울과 관련 변인 정도

Table 2를 보면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3.26점, 자아존중감은 3.11, 자기효능감은 3.04, 우울은 0.9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Variables

Variable	M±SD	Range
Stress	3.26±1.81	1-5
Self esteem	3.11±1.52	1-5
Self efficacy	3.04±1.68	1-5
Depression	0.96±0.81	0-3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Table 3에서 나이, 성별, 종교, 동아리활동, 흡연, 음주, 대학생활만족도, 거주형태, 경제수준, 성적수준은 우울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3.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M±SD	t or F	*p*
Age	22-29	0.95 ±.84	-.195	.846
	≥30	1.00±.59		
Gender	male	0.96±.73	.000	1.000
	female	0.96±.84		
Religion	yes	0.84±.82	-1.144	.255
	no	1.02±.80		
Club activity	yes	1.07±.61	.519	.605
	no	0.95±.83		
Smoking	yes	0.84±.89	-.871	.385
	no	0.1.0±.78		
Alcohol drinking	yes	0.98±.79	.189	.850
	no	0.95±.83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0.84±.76	.572	.634
	satisfaction	0.97±.91		
	moderate	0.95±.82		
	no	1.14±.65		
Res-idence	house	0.90±.78	.217	.806
Type	dormitory	1.02±.79		
	lodging living alone	0.96±.89		
Economic Level	high	1.0±.94	.043	.958
	middle	0.94±.83		
	low	0.97±.67		
Grade Level	high	0.86±.78	1.020	.364
	middle	0.95±.86		
	low	1.14±.76		

3.4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우울은 스트레스(r=.688, p<.01), 자아존중감(r=-.544, p<.01), 자기효능감(r=-.65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16)

Item	X1	X2	X3	X4
X1	·1	-.322** (.000)	-.424** (.000)	.688** (.000)
X2	-.322** (.000)	1	.428** (.000)	-.544** (.000)
X3	-.424** (.000)	.428** (.000)	1	-.653** (.000)
X4	.688** (.000)	-.544** (.000)	-.653** (.000)	1

**p<.01
X1:Stress X2:Self esteem X3:Self efficacy
X4:Depression

3.5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5에서 보면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면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다. 회귀식은 유의미 하였으며(F=79.227, p=.000) 설명력은 68.0%였다.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스트레스(β=0.246, p=.000), 자기효능감(β=-.170, p=.000), 자아존중감(β=-.131 p=.000) 순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3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726-0.796로, 분산팽창인자는 1.257-1.37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 for depression (N=116)

Variabl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s	1.086	.188		5.786	.000		
Stress	0.246	0.032	0.458	7.646	.000	0.796	1.257
Self esteem	−.131	0.032	−.245	−4.085	.000	0.793	1.261
Self efficacy	−.170	0.030	−.354	−5.633	.000	0.726	1.378

Adjusted R^2= 0.680 F=79.227

4.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상담, 취업연계, 학습지도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9]. 간호학과에 만학도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20대 초반의 구성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3학년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은 어렵지만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81%, 남학생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보고한 선행연구보다는 약간 높았다. 이는 취업이 잘 된다는 강점 때문에 학과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20]. 거주형태는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생이 35.3%, 자취 및 하숙이 27.6%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본래 집을 떠나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어 기숙사, 자취, 하숙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점수는 4점 척도에서 0−3점사이로 평균 0.96점의 우울을 보였다.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측정한 [21]의 연구에서는 6점 척도에 점수범위 0−50점사이로 총점 16.7점을 나타냈고, [22]의 연구에서는 4점 척도에 평균 1.84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측정도구가 약간씩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20대가 경험하는 우울은 30대, 40대의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23] 대학의 상담센터 담당자나 지도교수님은 학생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나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집중사례관리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26점으로 나타나 4점 만점에 평균 1.50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24]. 스트레스는 우울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료된다.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중재가 우울관련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경제 상태에 대한 우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월평균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24]의 연구를 볼 때 그 이유는 학년이 높을수록 교재 및 문제지 구입, 실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이 컷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책임까지 직접 부담하면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넉넉하지 않은 용돈을 줄여가며 학업을 유지하고 있어 정서적 불안, 우울감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 도구를 고려하여 추후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의 교육현장 지도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와 원인을 사정하고 중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1].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과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과목에 만족해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능력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나 우울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1,25].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학업수행에도 자신감이 있어 우울에 대처능력도 강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개인적 특성 및 우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 교육적 환경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68.0%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일반적특성 중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없었다. 우울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26]. 우울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간호대학생에게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지속되면 자아존중감은 저하되고 스트레스는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우울 관련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우울의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우울의 원인과 우울수준을 심층적으로 사정하고 관리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관련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대시키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R. S. Lazarus & S. Fa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Verlag.

[2]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 Efficacy, and Self –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e education, 12(2),* 205-213.

[3] H. S. Kim. (2003). Original Articles :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12(4),* 385-393.

[4] A. Bandura. (1969). *Principle of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dom and Company.

[5] D. J. Kim. (2013). *The Influence of Ego Resilla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s Satisface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6] Y. J. Choi, G. W. Lee, C. H. Jung & A. R. Lee. (2009).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18(2),* 186-196.

[7] Beck.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 An International Quarterly, 1,* 5-37.

[8] H. M. Park. (2013). *The effect o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in regards to personal relationship.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9] Yunhap News. (2013). *Serious Youth Mental Health.*

[10] Y. S. Choi. (2011). *The Effect of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rapy on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Cha Medical University. pochon.

[11] G. S. Uo, S. J. Jang, O. J. Choi & G. W. Park. (2008).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3),* 410-419.

[12] J. Y. Hong. (2012). Life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2),* 35-42.

[13] S. Y. Kim, S. Y. Lim & H. M. Choi.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4),* 59-64.

[14] M. Rog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B. Z. Jeon. (1974.).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elf concept measurement.* Yonsei Publishing House. 109-129.

[16]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 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17] H. S. Oh. (1993).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18] Y. H. Lee & J. Y. Song.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e. 10(1).*

[19] S. K. Choi. (2018).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5).*

257-266. DOI : 10.14400/JDC.2018.16.5.257

[20] S. J. Yu, M. R. Song & E. M. Kim. (2014).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 71-80. DOI : 10.5977/jkasne.2014.20.1.71.

[21] H. Y. Jung. (2016).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7),* 259-268. DOI : 10.14400/JDC.2016.14.7.259.

[22] M. K. Jeon & M. S. Kim. (2013). A study on relations among patient-adlles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293-302.

[23] S. J. Jang, S. B. Goo & D. B. Kang. (2005).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job stress measurement tool.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cience, 17(4),* 297-317.

[24] M. G. Seo. (2004). *A Comparative Study on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esteem Perceived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Master's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5] M. Y. Seong, O. S. Kim, Y. O. Jung & S. H. Sok. (2017). Comparisons of Clinical Practicum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Type D Personality and non-Type D Personality. *J Korean Acad Psychiatr Mental Health Nurs, 26(3),* 217-225. DOI : 10.12934/jkpmhn.2017.26.3.217

[26] K. M. Yang. (2016).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7(11).* DOI : 10.15207/JKCS, 2016. 7. 1. 113.

김정숙(Kim Jeong Suk) [정회원]

· 2018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건강증진, 정신건강, 보건학, 간호행정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

김성의(Kim Seong Ui) [정회원]

· 2018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정신건강, 호스피스간호, 사회복지
· E-Mail : agape2816@hanmail.net